



김제시약사회, 시에 100만원 지정기탁

김제시약사회(회장 박환철)는 10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김제시를 방문해 1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김제시약사회 박환철 회장과 김제노인복지센터 박경란 센터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돕기성금 기탁

김제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오형진)는 10일 김제시 관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 달라며 3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오형진 김제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우리의 기부와 봉사가 지역 주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용 소방대는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여름 휴가철 피서지 성폭력 예방활동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9일 관내 뱀사골 일대에서 성범죄 예방활동 및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자치경찰 사무)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활동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몰려드는 피서객을 노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피서객들에게 성범죄예방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성범죄 유형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코로나 19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또한,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렌즈 탐지기와 렌즈형 탐지기를 이용,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기장 청소년들 '우리는 친구'

오늘까지 부산서 청소년교류 수련활동... 해양레포츠 등 체험 우의 다져

무주군 청소년들이 지역을 뛰어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지역 청소년과 기장군 청소년 70여명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시 기장문화예술회장과 일원에서 청소년 교류를 통해 수련활동 체험의 시간에 참여했다.

군은 지난 1996년 기장군과의 자매결연 후 1999년에 처음 청소년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41번째를 맞는다. 청소년교류 사업은 산과 바다라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계절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돼 현재까지 무주군과 기장군의 청소년이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좋은 사례다.

이번 기장군과 무주군 두 지역의 청소년교류 수련활동에는 양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기장군의 해양레포츠 국립부산과학관, 롯데월드 등의 체험을 통해 지역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수련활동에 참여한 무주지역 청소년들은 소감문 및 설문조사 작성, 수련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감미경 과장은 "양군의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환경을 오감으로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철호 군산부시장, 코로나19 대응 현장 방문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주요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10일 황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감염 취약시설인 군산행복한집, 군산은파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은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기저질환이나 고령자가 많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황 부시장은 이들 시설을 방문해 종사자 선제검사와 외부 접촉 등 변경된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근무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종사자들에게 주회 PCR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비접촉 대면 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황 부시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이 많지만 나의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취약계층 100세대에 '말복 맞이 건강삼계탕' 전달

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제시 검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기심, 공공위원장 김원교)는 10일 본격적인 폭염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지역내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 100가구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폭염에 지쳐있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과 여름철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삼계탕을 전달받은 대검삼마을의 정모 어르신은 "보양스런 삼계탕을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시니 그 정성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기심 민간위원장은 "말복을 맞이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교 검산동장은 "여러분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더위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영재(군산시의회 의원) 시부상= 빈소: 군산중앙장례식장 2호실(2층), 발안: 12일(금), 장지: 완주 공설공원묘지, 연락처: 010-6620-6284, 마음 전하는 곳: 기업은행 32902908401014(예금주 김영자)



노형수 고창부군수, 하천정비 현장 긴급 점검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가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관리를 당부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형수 부군수는 아산면 부정마을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 지역은 하천 폭이 협소하고 제방이 낮아 집중호우 시 월류로 인해 주변 주거지,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실제 2년 전(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고창군은 2024년까지 하천 제방과 호안 등 8.7km에 걸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형수 부군수는 하천 흐름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집중호우시 나무나 건축자재 등 장애물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아산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불안해 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장마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7년 11월 23일 등·(2기)
(9)693912 전주시 온성구 7 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Includes phone numbers for various regional office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